

감자 가격 안정세... '대란'은 없다

노지·시설봄감자 재배면적·생산량↑...적당한 기후에 수확량도 상승 광주지역 감자 도매가격 전년보다 29% 하락...전통시장도 32.9%↓

지난 3년간 고온현상과 가뭄 등 이상기후로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끝없이 치솟던 감자 가격이 올해 들어 하향 안정되고 있다. 올해 감수량과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이 감자 재배에 적합했고,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감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광주지역 감자(20kg·특상) 도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3만301원으로, 전년(4만2671원) 대비 29.0%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농산물을 중심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함께 물가 안정 대책을 펼치면서, 소매가격 하락폭은 더 커졌다.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감자(100g) 소매가는 지난 21일 기준 357원으로 전년(532원)보다

32.9% 떨어졌다. 본격적인 봄감자 수확철인 6월에는 보통 감자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올해 봄감자는 지난 3-5월 생육기에 전년보다 감수량은 감소하고, 일조시간은 늘어나는 등 감자 농사에 적합한 기상 여건이 갖춰지면서 수확량이 증대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감자 농업관측 6월호'를 보면 국내 최대 감자 주산지 중 하나인 보성군의 경우 지난달 1~20일 기준 누적 감수량과 일조시간이 각각 220mm, 169시간을 기록했다. 감자는 생육기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뿌리가 썩고, 일조시간이 적어져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올해 역시 초봄에 잦은 강수가 내리고 흐린 날이 지속되면서 일조시간이 부족했지만, 전년(303mm·128시간)과 견줘 양호한 생육환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노지 봄감자 주산지인 밀양시, 서산시에 서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일조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육 상황이 호조를 맞았다. 노지 봄감자 재배면적은 1만4858ha로 전년(1만4699ha)보다 1.1% 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예상 생산량 역시 36만8495 t으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오는 7월 출하가 시작될 고랭지 감자 역시 재배면적이 전년(3835ha)에 견줘 2.4% 늘어난 3927ha를 기록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자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달 감자 출하량도 1년 전보다 9.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REI 관계자는 "지난 3월 남부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과 경남지역 노지 봄감자 수확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생육 상황이 좋은 편이다"며 "남부지역 감자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공급될 고랭지 감자 물량이 시장에 풀림에 따라 감자 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황도 캔'의 달달한 맛이 그림다

천도·신비·대극천 복숭아 등 다양... 신선처럼 즐겨볼까

필자가 좋아하는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7-8월이 제철이지만 뒤늦게 팔리는 게(조기 출하) 요즘 추세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밭그레한 복숭아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에 발걸음이 멈추기 마련이다. 무릉도원에서 신선들이 따먹었다는 복숭아는 수분이 많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여름철 보양식이라 할 만큼 무더위 극복에 좋은 과일이다.

복숭아는 품종에 따라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 5월 중순 출하하는 하우스 털복숭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즐겨 먹는 황도와 백도다. 수분이 많아 한입 깨물면 단맛이 확 스며오고, 과육은 새콤달콤하다.

6월 초에 나오는 천도 복숭아는 매끄러운 표면에 노란 과육이 도드라진데 표면 솜털로 알레르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고 새콤달콤한 맛이 단단하고 아삭한 과육이 특징이다. 6월 초나 중순 즈음 이렇듯 신비로운 신비 복숭아도 맛볼 수 있다. 겉모습은 천도 복숭아를 닮았지만, 과육은 백도를 닮아 달콤하고 수분도 많다. 1년 중 2-3주가량만 맛볼 수 있는 귀한 품종으로 크기가 작고 하루 이를 후속해 먹으면 아주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7월 초에 나오는 대극천 복숭아는 1년 중 일주일 정도, 가장 짧게 만날 수 있는 복숭아로 유럽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납작이 복숭아와 딱딱이 복숭아를 교배한 품종이다. 또 7월 초에 생산되는 말랑이 복숭아는 과즙이 풍부하고 후속할수록 말랑해지며 당도가 올라가 후속 후 냉장 보관해 시원하게 먹으면 좋은 종류다. 반면 7월 중순 만날 수 있는 딱딱이 복숭아는 아삭한 식감에 달콤함까지 갖춰 아삭한 맛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복숭아는 색깔에 따라 백도와 황도로 나뉜다. 과육이 희고 육질이 무른 백도는 단맛이 강하고 국내 재배 품종의 90%를 차지한다. 노란 과육으로 육질이 단단한 황도는 통조림 등 가공

용으로 많이 쓰인다. 유기산과 비타민A만 보면 황도가 백도보다 함량이 더 높다.

그런데 필자는 사람과 품종에 따른 호불호와 상관없이 복숭아 하면 생물 복숭아보다 가공식품인 '황도 캔'을 떠올리게 된다. 저장성이 낮은 복숭아를 사시지할 즐기 위해 고안됐다고 하지만, 그 실용성을 넘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과실이기 때문이다.

황도 캔은 젊은이들에게 호프집 사이드 안주거리 정도로 취급되지만 많은 이들에게 달달함을 주는 추억의 먹거리다. 어르신들에게 '복숭아 캔즈메(간스메-통조림)'로 익숙한 이것은 한때 병만 필수품 중 하나였다. 아이들에게 달콤한 겨울철 간식으로 오매불망 '따기(개봉하기)'를 기다리는 선물 같은 존재였다.

예전에는 왜든 아픈면 이걸 먹었는지 모르겠다. 복숭아의 달달한 맛이 통증을 사그라들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껍질을 부러서라도 먹고 싶은 맛이랄까.

황도 캔은 또 비싸고 귀한 음식이라는 인식에 선물용으로 애용됐다. 어르신들은 이가 없어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기 마련인데 철이 아닐 때도 먹을 수 있도록 저장성을 높이고 당도도 올린 복숭아 통조림이 선물로 제격이었다.

농사에서 과채류는 딱히 제철이 없는 철없는 과일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에 따라 과일 통조림 등 멸균을 하고 캔에 담아 오래 두고 먹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과일 통조림과 같은 가공식품의 수요가 예전과 같지 않아 판매량이 줄고 있다고 한다. 골뱅이며 깻잎, 심지어 삼겹살까지 캔에 담아 판매하는 시대가 됐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른 과일 캔의 선호 변화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사시지할 맛난 과일이 지천인 세상임에도 할머니가 슬쩍 건넨 통조림 속 황도 한 조각의 달콤함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뭘까.

/bigkim@kwangju.co.kr

수자원공사, 함평군·한전과 '스마트 기술적용 특화마을' 조성 협약

수돗물 신뢰도·음용률 향상 협력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이하 수자)가 23일 "지난 20일 함평수도센터, 함평군,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와 함평군 월아면 문화마을에 '스마트 기술적용 특화마을(Smart Village)'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관들은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각 기관의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함평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와 함평군은 정밀 여과장치, 누수감지 센서, 원격검침, 유량·수압감시, 스마트 음수대 등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을 활용해 수돗물 신뢰도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전은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계량시스템 설치와 '파워플래너' 어플을 통한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진 전남북부권지사는 "함평군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 협약을 통해 실시간 수질·전력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함



을 통해 실시간 수질·전력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함평군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달콤살벌' 사과·배 가격에...수입과일 4만t 추가

배 6500원·사과 3400원 수확기까지 가격 상승세

수확기까지 사과, 배 등 일부 과일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수입과일 4만t 이상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 소매가격은 이날 10개에 6만4004원으로 한 달 전보다 18.1%, 1년 전보다 124.2% 올랐다. 지난 19일에는 10개에 6만

5390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과 소매가격은 이날 10개에 3만3831원으로 한 달 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5.5%, 31.5% 올랐다. 지난해 생산량이 약 30%씩 감소한 여파로 사과, 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부터 수확기까지 사과와 배 공급량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1.3%, 87.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소매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철 과채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

다. 참외 소매가격은 10개에 1만6124원으로 1년 전보다 16.4% 내렸다. 수박 소매가격은 개당 2만 1026원으로 1년 전보다 4.4% 비싸다. 일부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 회의에서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수입과일 4만t 이상을 더 들여오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4월 키위, 체리 등 8종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올해 벼 재배면적 68만~69만ha 전망

농식품부, 재배 목표치보다 1만ha 이상 감소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000~68만9000ha(헥타르·1ha는 1만㎡)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아 산지 쌀값을 지지하고자 올해 벼 재배 면적을 69만9000ha까지 줄이고자 했는데, 이 목표치보다 1만ha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논농, 가루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락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했고 농지 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70만8000ha)와 비교하면 1만9000~2만5000ha 감소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